

6. 교육

# 성공·실패는 오직 사람에게 달려있다

1895년 승니의 도성출입이 허용되면서 한국불교는 오랜 침체를 딛고 회생의 기회를 맞는 듯했다. 그러나 억압에서 풀려난 승려들이 4대문 안에서 목도한 것은 우승열패라는 진화론적 가치관과 생존경쟁의 치열함이었다. 하지만 불교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 제국주의 열강을 등에 업은 서양 종교와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헌사 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이 <승염경> 강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불교중흥을 도모하기 위해 교계의 선각자들은 잇따라 개혁론을 내놓았다. 1910년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을 필두로

1912년에는 퇴경 권상노가 <조선불교개혁론>을, 1922년에는 범만 이영재가 <조선불교혁신론>을 각각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들 개혁론은 불교가 시대에 뒤쳐진 것은 불교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승려를 비롯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퇴경은 불교가 낙후한 것은 사실이지만 6000여 승려와 900여 사찰을 소유한 조선불교계가 사회를 선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개혁론의 분석이다. 따라서 개혁의 핵심은 사람을 개혁하는 것이며, 사람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혁신되어야 한다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불교유신론>도 철저히 사람중심의 사상을 견지한다. 만해 스님은 “성공과 실패는 오직 사람에게 의해 결정된다”고 단언하고 불교개혁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도 사람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교육개혁을 비롯해 승가개혁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이것은 제도와의 의례보다 사람의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해 스님은 “지혜로 자분을 삼고, 사상의 자유로 법칙을 삼고, 진리로 목적을 삼아야 한다”는 교육의 원칙을 제시했다. 불조가 남긴 지혜를 갖고 뒤야 진리를 추구하고 교육이 과거의 전통을 답습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만해 스님은 사상의 자유가 없는 학문은 노예학문이라고 비판하며 사상적 자유를 강조한

## 불교가 시대에 뒤쳐진 것은 사람의 문제 교육 혁신에서 불교 개혁의 핵심 찾아

다. 이는 당시의 승가교육이 노예학문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당시 행해지던 학제는 속종 때 마련된 것이므로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동일한 교과와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다. 시대와 역사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과거의 전통을 곱씹고, 이에 따라 승가의 인식은 수백년 전의 가치기준에 나포되어 있었다. 만해 스님은 이와 같은 교육제도로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설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게다가 한문을 해석하는 서당식 교수법에 머물러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만해 스님이 제시하는 해법은 보통학과 사법학 그리고 해외유학이다.

첫째, 보통학이란 세상 돌아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문으로 일반상식에 해당하는다. 보통학이 필요한 이유는 당시 승가가 ‘승승의 자리에 있는 자 조차 육대주를 구분하지 못하고, 만국지도를 보면 장님이 그림을 대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은 사회에서 중생을 제도해야 하는 것이 승려인 만큼 불교학만 공부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둘째, 사법학이란 중생을 올바르게 제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데 필요한 풍부한 지식과 교수법을 익히는 것이다. 만해 스님이 말하는 사법학은 자연사법과 인사사법으로 구분된다. 자연사법이란 사물의 물리를 관찰하는 것으로 자연과학에 해당하며, 인사사법이란 중생의 허물을 바로

잡아 구제하는 것으로 인문·사회과학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법교육이란 단순히 교수법에 대한 교육을 넘어 과학적 지식을 익히고 인문학과 사회학에 대한 폭넓은 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우물 안 개구리신세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유학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데 승려들의 인식이 닫혀 있다면 안목이 고루해지고 인식이 넓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나 중국으로 가서 불조의 발자취를 더듬

어 전하지 않은 문헌을 번역하고, 이를 통해 세계불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문명국에도 찾아가 그 나라의 종교와 지식을 익혀 한국불교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해외유학이다.

만해 스님의 이와 같은 교육개혁론은 지난 100년 동안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설립 등을 거치면서 꾸준히 실현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승가대학에서는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만해와 퇴경이 한탄하던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중대에서 승가교육 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개혁안은 만해가 주장한 바와 같이 승가교육을 현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만해 스님의 개혁안이 중단적 차원에서 수용되고 실천으로 옮겨지기까지 무려 100년의 세월이 소요된 셈이다. 하지만 이는 만해 스님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문제에 대해 그야말로 100년을 내다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역설적 대목이기도 하다.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만해 스님의 뜻이 실현되어 인민의 승승이 배출되기를 <조선불교유신론> 100주년을 맞아 기대해 본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 무관심에 사라져 가는 만해 스님 가옥

# 독립운동의 산실... 불교계 관심 전무

만해 스님이 3·1 독립운동 직전에 1년 여간 살았던 서울 종로구 계동 43번지 가옥을 찾았다. 만해 스님 가옥은 한국 전통가옥 체질의 명소가 떠오르고 있는 북촌한옥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 현대사에서 중앙고등학교를 연결하는 길로 500여 m 올라가다보면 이모 분식과 중앙목욕탕 사이 골목 두 번째 집이 있다. 계동길 62-16번지 팻말이 붙여져 있는 곳이 바로 만해 스님 가옥이다. 어디를 봐도 만해 스님의 가옥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낡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 동네에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이라면 만해 스님 가옥이라는 것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다.



서울 계동 43번지. 만해 스님이 1918년 1년 동안 거주하며 <유심>지를 발간했던 곳이다. 지금은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리모델링되고 있다.

계동 가옥은 30평 정도의 작은 ‘ㄷ’자 형식의 목조 기와집으로 높이도 낮고 면적도 좁았다. 스님은 설악산 오세암에서 1918년 올라와 3·1운동으로 투옥될 때까지 이곳에서 거주했다. 스님은 이 가옥에서 1918년 9-12월 통권 3호 불교월간지 <유심(唯心)>을 발간했다. 집필자는 대부분 불교도로 최린·최남선·유근·이광중·이능우·김남천·박한영·백용성·현상윤 등이 참여했다. 같은 해 12월 스님은 근처에 있는 중앙학림 강사로 취임해 불교포교에도 앞장섰다.

이곳에서 거주하던 만해 스님은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며 불교계를 대표했다. 또 최남선이 작성

## 1918년부터 3·1운동 투옥시까지 거주 외국인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재단장

한 독립선언서의 자구를 수정하고 공약 삼장을 첨가했다. 만해 스님은 최남선이 써온 독립선언문이 “말이 안 되며 한문 투로 돼 있어 민중이 읽기에 불편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새로 짓겠다고 꺼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일이 촉박하다는 주위의 만류로 스님은 공약삼장만을 추가했다. 이렇게 작성된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27일 보성사 인쇄소(현재 조계사 후문 맞은편 근린공원에 터만 남아있다)에서 3만 5000매를 인쇄해 발부했다.

스님의 가옥 서쪽으로 가회동사 무소 자리에는 독립운동가 손병희의 집이 있었다. 남쪽 방향으로 지금의 헌법재판소에는 최린의 집이 있었다. 이들은 손병희의 집에서 1919년 2월 29일 밤, 민족 대표 23인이 거사를 앞두고 서로 의지를 다지기 위한 회동을 하기도 했다. 스님은 그날 밤 이 가옥에서 무슨 생각으로 잠을 청했을까?

스님이 이곳에 머문 시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깊다. 2003년 12월 근현대 역사·문화 인물과 관련된 건물을 일괄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예고할 당시

만해 가옥도 그 대열에 들었다. 2005년 12월 등록 예고를 했지만 2006년 12월 문화재 위원회에서 유보했다. 유보 이유에 대해서 문화재청 관계자는 소유자등록만대나 민원제기 등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배민성 근대문화재과 사무관은 “문화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동안 소유자 설득 등 문화재 등록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등록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부결이 아닌 유보된 상태이므로 지자체에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하거나 시민단체가 보존 가치를 발견한다면 언제든 지 등록이 가능하다.

9월 2일 찾아가던 만해 가옥은 문이 열려있었다. 외국인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내부를 새롭게 단장하는 중이었지만 본래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불교계의 관심이 아쉬웠다. ‘독일은 고편이 허물만 머물렀던 여관조차 꽃말을 세워 관리한다’는 말이 새삼 떠올랐다.

### ■ 글 쓰는 순서.....

1.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2. 수행
3. 포교
4. 중단 및 사찰운영
5. 신행
6. 교육
7. 계율
8. 만해와 오늘의 불교
9. 소설-만해 스님

# 근대 한국불교 최고의 명저 『조선불교통사』 최초 완역!

2010년 9월 10일,  
『역주 조선불교통사』 전집이 드디어 출간됩니다!

1권 908쪽, 2권 684쪽  
상편 「불화시처 佛化時處」 1, 2  
삼국시대 불교 전래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조선 불교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관통한다!

3권 904쪽  
중편 「삼보원류 三寶源流」  
부처님의 생애와 인도의 불전 결집, 중국의 역경사, 조선 선종 계보의 흐름까지 한눈에!

4권 768쪽, 5권 792쪽, 6권 792쪽  
하편 「이백품제 二百品題」 1, 2, 3  
사상, 문화·예술, 인물, 사적 등 불교에 관한 다양한 관심사를 200여 편의 이야기로!

7권 1100쪽, 8권 200쪽  
원문개정판/총목차·색인집  
전거를 바탕으로 원문의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판 『朝鮮佛敎通史』와 전집 전체의 총목차·색인!



4\*6배판 1~7권 고급양장본, 8권 반양장본 1케이스 포함 1질 정가 400,000원

이능화가 편찬하고 최남선이 교열한 『朝鮮佛敎通史』는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그리고 1916년 편찬 당시까지 한국불교사를 총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순한문체로 저술되어 지금까지도 그 전체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역주 조선불교통사』는 2002년 8월부터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역주, 해제 작업을 시작해서 마침내 2010년 9월에 8권의 전집으로 완역하여 출간을 이루게 되었다.

『朝鮮佛敎通史』 완역사업은 한국 불교학계와 역사학계의 화두이자 오랜 숙원이었다. 따라서 『朝鮮佛敎通史』의 완역본인 『역주 조선불교통사』를 발간한 것은 한국불교사 연구의 한 획을 긋는 일대 전변轉變이라 할 만하다.

구입문의: 전국유명서점, 인터넷서점, 불교전문서점  
동국대학교출판부 02)2264-4705/4714